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③

十方世界 量同虛空 爲佛境界故
시방세계 양동허공 위불경계고
一切諸佛 及以衆生 所有心境
일체제불 급이중생 소유심경
互相參入 如影重重 不說有佛無
호상참입 여영중중 불설유불무
佛世界 不說有像法末法 如是時分
불세계 불설유상법말법 여시시분
常是佛興 常是正法 此乃了義經
상시불흥 상시정법 차내요의경
但說有此方穢土 別方淨土
단설유차방예토 별방정토
有佛無佛處所 及像法末法
유불무불처소 급상법말법
皆爲不了義經
개위불요의경

시방세계란 곧 허공과 같아 전부가 부처의 경계가 된다. 그런 까닭에 모든 부처님이나 중생의 마음과 그 경계가 서로 합쳐지는 것이 마치 그림자처럼 겹쳐지는 것이니, 부처가 있고 없음의 세계를 말하지 않으며, 상

誓遵了義懇苦之言
서준요의간고지언
不依權學方便之說
불의권학방편지설

또 이르기를 '여래가 사견(邪見)에 빠진 일체 중생을 위해 출현하여 복덕의 경계에 대해 간략히 말씀했으나 실제로 여래는 나타나거나 사라짐도 없다. 오직 도(道)와 더불어 상응하는 자만이 지혜와 경계가 스스로 융합하여 여래는 출현하거나 사라진다는 소견을 내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 선정(禪定)과 관조(觀照)의 두 문에 의해 마음의 때를 다스리는 것이다. 생각이 있고 형상이 있어서 아견(我見)으로 도를 구한다면 끝내 상응하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지혜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 스스로 교만함을 꺾고 공경하는 마음이 사무쳐야만 비로소 선정과 지혜의 두 문으로써 결정한다' 하였다.

옛성현의 가르친 뜻이 이러한데 어

道와 더불어 상응하는 자만이

지혜와 경계가 스스로 융합

법(像法:부처님 입멸후 1천 년의 정법시기가 지난 후의 1천 년 기간)이나 말법(末法)이 있음도 말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항상 부처님이 출현하며 항상 정법이라 한 것이 요의경(了義經:절대 진리를 말한 경. 一乘實敎)이고, 더러운 세계나 깨끗한 세계가 있다거나 부처님이 계시는 곳, 안 계시는 곳, 또는 상법과 말법이 있다고 말한 것은 불요의경(不了義經:진실의 세계로 유인하는 방편의 가르침. 三乘權敎)이 된다' 하였다.

又云如來 爲一切邪見顚倒衆生
우운여래 위일체사견전도중생
示現出興 略說少分福德境界
시현출흥 약설소분복덕경계
而實如來 無出無沒 唯與道相應者
이실여래 무출무몰 유여도상응자
智境自會 不作如來出興滅沒之見
지경자회 부작여래출흥멸몰지견
但自以定觀二門 以治心垢 情在相存
단자이정관이문 이치심구 정재상존
我見求道 終不相應 須依智人
아견구도 종불상응 수의지인
自摧驕慢 敬心徹到
자최교만 경심철도
方以定慧二門決擇 先聖敎旨如斯
방이정혜이문결택 선성교지여사
豈敢造次 輒有浪陳
기감조차 첩유낭진
찌 감히 경솔하게 헛되이 보내리오. 맹세코 절대 진리의 간절한 말을 따르고 방편으로 베푼 말에는 의지하지 말아라.

我輩沙門 雖生末法 稟性頑痴
아배사문 수생말법 품성완치
若自退屈 着相求道則從前學得
약자퇴굴 착상구도즉종전학득
定慧妙門 更是何人 所行之事
정혜묘문 갱시하인 소행지사
行之難故 捨而不修則今不習故
행지난고 사이불수즉금불습고
雖經多劫 彌在其難 若今強修
수경다겁 미재기난 약금강수
難修之行 因修習力故 漸得不難
난수지행 인수습력고 점득불난

우리 사문들이 비록 말세에 나서 품성이 둔하고 어리석다 해서 만일 스스로 물러나서 형상에 집착하여 도를 구한다면 전부터 배워온 선정과 지혜의 묘문(妙門)은 누가 행해야 할 일인가. 행하기 어렵다 해서 버리고 닦지 않는다면 현재 익히지 않으므로 다겁을 지낸다 해도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만일 지금 억지로라도 닦는다면 그 닦기 어려운 행도 닦고 익힌 힘 때문에 점점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진제스님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
지금 그대에게 활구법을 부촉하노니
거두거나 놓거나 그대 뜻에 맡기노라."
佛祖大活句 無傳亦無受
今付活句時 收放任自在

67년 향곡스님이 진제스님에게 내린 전법게다. 이로써 진제스님은 경허→혜월→운봉→향곡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었다. 54년 출가 이후 줄곧 선수행에 매진해온 진제스님은 선의 대중화를 위해 부산에 해운정사를 창건(71년)했으며, 94년에는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96년 동화사 기초선원 조실로 추대되어 후학들을 이끌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추대법회 후 스님을 만나 태고선원 운영 방침과 선, 참되게 사는 길을 여쭈었다.

"온갖 갈등해소는 참선뿐"

· 1934년 경남 남해生
· 54년 남해 관음암에서 석우 선사를 은사로 득도
· 57년 통도사에서 지운 율사를 계사로 구족계 수지
· 67년 향곡 선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음
· 71년 부산 해운대 장수산에 해운정사 창건
· 94년 선학원 이사장,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에 추대
· 96년 조계종 기초선원 조실에 추대
· 2000년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에 추대
· 저서:〈선 백문백답〉 〈돌사람 크게 웃네〉 〈염화인천〉

—이곳 태고선원은 조계종립 특별선원입니다. 그 동안 조실스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이제 스님이 오셨으니 적막함을 씻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게 운영하실건지요.

▲여기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운정사와 동화사 두 군데의 조실만을 맡은 것만 해도 큰 짐입니다. 특히 해운정사만해도 40여명의 스님들과 90여명의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도와야 합니다. 지난 여름 안거 해제를 하루 앞두고 봉암사 태고선원 스님들이 관광차에 타고 갑자기 찾아왔어요. 전날 대중공사를 해서 스님을 조실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가시지 않으면 몇 달이고 데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날 올라와서 해제법문을 했습니다.

태고선원은 우리나라의 선풍을 드날린 선의 대장소입니다. 제방에 선원이 있지만, 태고선원은 전국의 선객이 모두 모여 용맹정진하는 곳입니다. 상주대중과 호흡하며 정진에 몰두할 것입니다. 장군죽비로 경책해 인천(人天)의 스승을 배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화사 기초선원장 소임은 후임자가 나오면 즉시 그 스님에게 고맙다고 절하고 놓을 것입니다.

—참선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은 모든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조금의 차별도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마음광명이 뚜렷이 밝아 있는 분이요, 중생은 번뇌의 구름에 가리워져 마음이 어둡고 미(迷)한 자입니다. 이 마음은 만중생이 다 갖고 있어 일상생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고 있지만 그 광명이 밝지 못하므로 각자의 업(業)을 좇아서 천갈래 만갈래의 번뇌에 휩싸입니다. 아만심 시기심 질투심 탐심 애정 공포 불안, 이러한 잡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쉴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선법을 익혀 꾸준히 정진한다면 마음의 번뇌가 다 하고, 마음의 번뇌가 다 한 거기에서 마음광명이 뚜렷히 밝아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항시 밝아서 즐겁고, 온갖 업의 장애가 다 소멸되므로 세상사 모든 것이 원(願)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참선법은 누구라도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지도하는대로 행한다면, 금생에 모두 마음의 고향에 도달하여 나고 날 적마다 멋진 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체성(體性)을 본 이는 세상법에 물드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체성은 어디 비유할 데 없이 항시 밝고 깨끗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이는 어느 곳에 처해도 물드는 바가 없고 홀로 당당한 법입니다.

—요즘 선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원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선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외국 종교를 좋아했지, 불교의 진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온갖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선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보인 뜻은 무엇이며, 자리를 나누어 가사를 같이 두르고 앉은 뜻은 무엇이며, 또 두 발을 내미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혁파해야 합니다. 모든 후손들이 부처님의 이 살림살이를 깨달아, 거기에서 백천 가지 공안이 벌어진 것입니다.

화두를 깊이 의심하면 만 가지 소리가 스쳐지나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찰나에 만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화두선은 임제가풍인데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습니다. 활구참선은 오직 한국에 있습니다. 희양산에서 도인이 나와 세계에 활구참선법을 유포하려고 이 곳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화두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화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깨달으신 경계를 만인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깨달은 진리의 세계에 옛것이 있고, 오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분종사(本分宗師)들은 항시 최고의 화두를 간택해 줍니다. 사람마다 모양과 이름이 다르듯 화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을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아무개입니다 한다면 통하지 않겠지요. 백천 공안도 이 같은 이치입니다.

선지식이 공부하는 이에게 천칠백 공안 중의 한 화두를 주나, 의심을 물어서 한 마디 던져주든 상대방이 얼마만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음을 갖고 참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부가 무슨 화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도(大道)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선지식이 던지는 한 마디가 금쪽같은 것이 되겠지요.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라고 보십니까? 위빠사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년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컬러만화로 보는
허준의 처방 동의보감

건강진단에서 한방 처방전까지, 우리 가족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원전에 충실한 해설, 한 눈에 쏘옥 들어오는 컬러그림!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활용하는 생활속의 한방의학 만화백과입니다.

1권: 정력과 활기편
건강장수, 정력증강, 건강한 임신, 중풍치료, 각종 해독 등

2권: 장부의 원기편
신장, 힘줄, 허리, 다리, 전음, 허약 등

한약재의 효능과 조제법이 친절히 설명
다양한 한약재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실제 처방대로 가정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책입니다.
박천수 전주 민속한의원장

온 가족의 건강상비서로 활용하시길
우리 체질에 맞는 진단, 재미있는 해설, 알기 쉬운 처방이 담긴 이 책은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황수관 신바람건강박사

글 · 그림 이정민 | 감수 허태현(한의학 박사) | 각권 8,500원 | 전2권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민속한방의학으로
난치병을 다스리고 예방한다

전주 모악산 기슭에서 각종 암, 관절염, 디스크, 통풍, 신경통, 산후통, 루푸스 환자들을 치유하며 얻은 생생한 기록!

민속한방의학으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
유황약오리를 이용한 약물요법 · 항암약차 요법 · 쑥뜸요법 · 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난반요법 · 녹즙요법 · 솔잎 땀내기 요법 · 쑥탕목욕 요법 · 호도유 요법 · 수맥과 건강 · 발 주무르기 · 항문 조이기 · 기공 · 단전호흡
박천수 · 김인택 지음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328p | 9,000원

민속한방의학으로 관절염을 이겨내는 방법
관절염 · 신경통 · 산후통 · 허리디스 · 크건비통 · 통풍 · 루푸스 치료법
한방약물요법 · 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 · 약치요법 · 쑥뜸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녹즙요법 · 솔잎 땀내기 요법 · 쑥탕목욕 요법 · 적절한 운동 · 발 주무르기 · 항문 조이기 · 단전호흡
박천수 · 김인택 지음 |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232p | 8,000원

태일 건강 총서

호기심 박사 황수관의 건강 따라하기
황수관 지음
황수관 박사와 함께 따라해 보는 매일매일의 건강치침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노화방지법을 찾아볼 수 있다.

뼈와 장수의 묘약 홍화씨 건강법
이인우 · 최진규 지음, 김관호 감수
부러진 뼈, 골다공증을 고치는 데 신통한 효력이 있는 홍화씨. 뼈에 관련된 여러 질병의 예방법 또한 나와 있다.

초두루미 구관모의 옛날 식초 장수법
구관모 지음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을 치유하는 식초요법. 식초 한 병이 산삼 만 뿌리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氣치료와 생식요법으로 병을 고친다
강형희 지음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食은 운명을 좌우한다
미주노 남보꾸 지음, 다이이레이이치로 편저, 최진호 편역
인간의 빈부와 수명, 미래의 운명까지도 음식으로 결정된다. 무절제한 현대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서.

不老長生의 지혜
최진호 지음
세계 장수촌과 선인들에게서 캐낸 건강 장수의 비밀. 노화와 장수에 대한 20여년 연구의 성과물을 모았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허준의 후예들
김성수 엮음
한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한의대생들, 허준 같은 명의를 꿈꾸는 한의사들의 체험과 당부의 이야기를 담았다.